

사설

불국토 향한 새로운 시작

올해는 그 동안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민족문화 유산의 수호와 포교의 활성화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해'로 지정했다. 한국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은 '전법의 해'로 정하였고, 청소년포교단체인 '파리미터청소년협회'는 '효상상실현의 해'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가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한 것은 불교계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사찰환경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불교계는 파괴되어 가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전통사찰이 자리잡고 있는 국립공원안에 스키장, 콘도미니엄, 리조트, 연수원 등이 마구잡이로 허기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중심부인 사찰환경의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당국은 한 해를 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새로운 각오로 실천할 것 같다.

첫째,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는 문화정책을 수립·집행 해야한다. 97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알기사업(13건), 문화유산 찾기사업(7건),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12건)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문화유산찾기사업을 빼놓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문화유산 지키기 운동과 문화운동의 시민운동적 성격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과 문화의식의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되살리기 못지 않게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과과법이라는 비안이 많다.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불교관계법령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의 산실인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악법'적인 내용이 많은 지적은 한 두번 받은 게 아니다. 이러한 악법적인 보완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의 민족문화 유산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게 문화유산관계법령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한 이상 각종 개발정책으로 빚어진 문화유산과 괴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주고성철도 통과 건설, 경주 경마장 건설, 해인사 골프장 건설, 봉은사 앞 아셈(ASEM) 초고층건물 건설 등의 계획은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문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지은 그동안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불교계의 각오도 새로워야 한다. '전법의 해'로 선포된 이상 다양한 전법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개발음의 사회화 운동'을 좀 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사회 속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문화유산 지키기'를 위해 보살도를 실천할 때 전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원을 세우자. 효상상실현운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심어주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불사도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류복지 정토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

지역별 전통마을 지정

백산스님(남양향토사연구회장)=정부가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조직위원회 및 집행부서까지 설치하고 1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니 향토사와 민족문화 연구하는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른다. 조상이 남긴 훌륭한 일과 생활사의 자취가 거의 말살되어 가는 참나에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이 구호가 그 어떤 구호보다 의미있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여나 이 해가 가기도 전에 선거 태풍에 밀려 이 구호가 사라지거나 없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 따라서 허황된 구호보다는 가까운 주변의 문화재를 내 몸같이 아끼면서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각 지역마다 전통마을과 전통학교를 둔다든가 국립지리원의 기능을 강화해 문화재 표시 하나라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유형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와 각급 단체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돼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보현(백제문화개발원장)=우리 에게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고전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살피고 가꾸어서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격한 관리자로서, 언론기관은 문화재의 소중함과 파괴현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도자로서, 일반국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정성껏 보살피고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번 파괴된 문화재는 현대의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감시, 그리고 관리에 우리 모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해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

신현정(가평문화원장)=문화유산의 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행태의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지역 문화원장 및 향토사학자들은 올 '문화유산의 해'를 그동안 우리의 문화재를 받쳐주고 소홀히 해 온 정부와 국민 모두 각성을 촉구하는 반성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이아말로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반민년 역사에 걸맞는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문화유산의 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열린마당

지역문화원장·향토사학자에게 듣는 '문화유산의 해'에 바란다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우리 문화원은 제주에 전통학교를 내려오고 있는 무가(巫歌·무속제제시 무당이 낭송하는 서사시)를 채록 수집하고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발굴·보존 균형있게

이인호(익산문화원장)=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그동안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존할 것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정작 발굴해야 할 것을 방치해 둔 사례도 많았다. 특히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발굴·보존되지 않은 점도 이번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우리 지역에는 교사들과 향토사학자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고적선양회가 있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제대로 활동을 펴기 어려운 상태다. 지역에서 문화재를 사랑하고 가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여건조성도 필요하다.

올해 익산에서는 정국민속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같은 행사를 통해 지방 문화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독특한 지역문화 발굴

양중해(제주문화원장)=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훌륭한 우리 전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문화유산의 해에는 우선적으로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함께 이를 문

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우리 문화원은 제주에 전통학교를 내려오고 있는 무가(巫歌·무속제제시 무당이 낭송하는 서사시)를 채록 수집하고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형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와 각급 단체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돼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보현(백제문화개발원장)=우리 에게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고전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살피고 가꾸어서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격한 관리자로서, 언론기관은 문화재의 소중함과 파괴현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도자로서, 일반국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정성껏 보살피고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번 파괴된 문화재는 현대의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감시, 그리고 관리에 우리 모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해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

신현정(가평문화원장)=문화유산의 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행태의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

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그래서 문화재찬찬을 벌일 수 있는 해가 돼야 한다. 문화재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지방문화재 발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평의 경우 태고 보우스님 열반지 등의 사적지를 비롯해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것들이 10여건이상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각 지방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선정,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넓히고, 문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 또한 문

화유산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옛것 통해 미래열자

김택규(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회장)=일제강점기 이후 얼마나 많은 지상·지하의 문화재가 약탈·도굴되고 매매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되었던가를 뼈저리게 되짚어 보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옛것을 묵수(默守)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치 탐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재개발될 때 의미가 큼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는 이같은 지향점을 갖고 율해도 낙동강 영상각 섬진강 등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로 밀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쫓기는 네대 지쳤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 속의 행복을 찾고있다.

독일의 어느 소설가는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호화스런 삶이란 물질적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다."

자기시간을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 될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희망찬 출발을 했다. 올해는 경쟁 또는 목적달성이란 이름아래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마음대로 여유있게 쓰고 '시간의 주인'이 되자. 그러기위해 대행스님의 새하침 덕담에 귀 기울이자. "몸은 바빠 움직여도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세요."

시간의 주인

경쟁 스트레스에 못겨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해에는 자살건수가 하루평균 25명에 이르렀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사의 여름수련대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도 '빨리빨리'를 좇아 좋은 것 없다는 '천천히' 바람이 불고있다. '빨리빨리'를 의미하며 숨막히게 달려온 우리의 통증을 깨는 역전

목어

"시간이 없어서" "바쁘지요" 일상속에서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모두 바쁘게 산다. 걸음이 재더뭇해 뛰는가 하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차에서도 길에서도 통화를 할 정 도다.

독일에서는 요즘 '느리게 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시간 지체를 위한 위한 모임" 템푸스(Tempus)는 삼의 고속화현상에 반기를 든 단체다. 회원은 독일·오스트리아에 교수 박사 기업인 등 5백여명이 있다.

또 푸스라는 '같은 사람 보호협 회'가 있어 자동차 제한속도 시속 30km와 보도를 넓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속 식음행태에 저항하는 슬로우푸드라는 이색모임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인 60%가 분주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한가

현대만평 박근원

지키고 가꾸고...

案 포 교 지 도 자 양 성 고 시 內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며 포교사·법사는 불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사와 같습니다. 자아발견과 인간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을 배우며 지혜와 자비로 평화의 길·봉사의 길·해탈의 밝은 길을 밝히는데 눈과 손이 되어주시고 보살서원으로 정진하십시오. 포교사·전법사·법사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시위원회

- 중명 : 송서암(전 조계종 종정) 강석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안덕암(전 태고종 종정)
- 고문 : 무진장스님, 성암도스님, 김태웅스님, 김법혜스님 이외윤·김명운
- 총재 : 윤호석
- 고시위원장 : 월운스님
- 고시위원회 : 오형근·김영태·조용길
- 집행위원장 : 성순경

고시문제

- 포교사 응시자 - 불교학·불교사중에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50매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 전법사 응시자 - 원시불교·소승(부파)불교·대승불교 가운데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논문 작성하여 제출
- 법 사 응시자 - 원시불교학·삼론학·유식학·정토학·구사학·밀교·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150매 내외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 「처음 응시자는 포교사, 포교사는 전법사, 전법사는 법사로 응시함」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후원 : 불교TV·불교방송·현대불교·주간불교·대한불교

구비서류

1. 고시지원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4매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5. 호적등본 1부
6. 포교사자격자는 포교사증 사본 1부 (도장을 두군데 정확히 본인인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료 : 50,000원 * 온라인번호 -주택은행 490701-94-200265(예금주:(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자격 득 한후

- 합격자에 한하여 품계식거행
- 연수 및 분기별교육예정(사자명 교수초청특강)

논문마감 1997년 2월 10일 18:00까지 제출

면접고사 1997년 2월 19일 14:00 (전형료 납부후 논문제출하여야 면접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법당(마포구소재)

문의처 : 포교지도자양성고시위원회 총무처 TEL (02)395-257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60호 FAX (02)395-2574